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탄탄한 직장, 높은 연봉, 자기 계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골드미스'는 오늘날 싱글 여성이 꿈꾸는 이상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및 시간적 여유를 동시에 누리며 문화를 향유하는 여성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따르면 33세에서 38세까지의 여성 회원 중 연봉 3천만원 미만의 비율이 41.5%에 달한다고 하니, 이상과 현실은 그만큼의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금 흐름이 좋은 맞벌이와는 달리 싱글 여성은 급여가 한정적이므로 남들과 똑같은 소비를 하다가는 텅 비어 있는 지갑에 좌절하기 십상이다. 싱글 여성은 한정적인 소득으로 주거비·식비·공과금 등과 같은 생활비에 비정기적인 의료비 발생에도 대비해야 하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철저히 관리하라

합리적 소비 습관만 가져도 월 투자 50% 높이기 가능

남은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자산도 증식시켜야 하는 이종고에 처해있다.

흔히 싱글 여성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눈 앞의 결혼만을 생각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일단 모으고 보자는 생각으로 저축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보니, 일정 수준의 목돈까지는 마련하지만 그 이후에 이를 효과적으로 투자하기를 꺼려하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기르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해 보수적인 업무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보면 돈은 생

각만큼 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위치도 서서히 불안정해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싱글 여성은 무작정 저축하기 이전에 왜 돈을 모아야하는지에 대한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혼과 직장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재무목표가 세워져야 효과적인 투자전략이 가능하다. 자신만의 경쟁력 확보는 결국 월 현금 흐름의 안정화로 연결돼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 기회비용으

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싱글 여성이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는 지출 후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려 한다는 것이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적금 상품보다 주식형 펀드에 관심을 갖는 싱글 여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합리적인 지출을 통한 잉여자금 확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급여의 대부분을 소비성으로 지출하면서 월 10~20만원을 적립식 펀드로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보려 자산 형성에 그다지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싱글 여성을 재무상담 해보면 회사 경력도 있고 연봉 수준도 괜찮지만 모아놓은 자산은 별로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과소비로 인한 지출관리 실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싱글 여성들은 반드시 지출내역을 분석해보고, 불필요하게 지출된 부분들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 습관만 기르더라도 월 투자 금액을 50% 이상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에 앞서 합리적인 지출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싱글 여성이 돈을 모으는 대명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싱글 여성 '골드미스' 되는법

1,200명 뽑는 국제청 9급 세무직

호남서만 3,056명 응시

국제청의 근로장려제제 업무 인력 공채시험에 광주지방공공체청 관할인 호남에서도 3천여 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지방공채청에 따르면 국제청이 근로장려제제 업무 인력 확보를 위해 내내까지 7.9급 직인 3천 명을 채용기로 한 계획에 따라 올해 1차로 9급 1천200명을 뽑기 위한 시험이 오는 16일 전국 5개 지역 18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광주국제청 관내에서도 이번엔 모두 3천56명이 응시했는데 이들은 16일 광주여성, 동성여중, 서진여고 등 광주 시내 3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광주국제청은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위해 지방청 및 산하 세무서 등에서 28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유통업계 경기회복 조짐

백화점·마트 '호조' 슈퍼·편의점 '저조'

유통업계에도 경기회복의 조짐이 완연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본격적인 호경기가 예상되는 반면 동네슈퍼·편의점의 경기는 저조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916개 소매유통업체 대상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4·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116으로 전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R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그만큼 해당분기의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각각 의미한다.

RSBI 전망치는 지난 1·4분기 90으로 중기 바닥권을 형성한 후 2·4분기 93, 3·4분기 112에 이어 4·4분기 116을 기록함으로써 3분기 연속 상승과 함께 2분기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한 경기를 나타내는 RBSI 실적치는 3·4분기 101로 지난해 2.4분기 이후 5분기만에 기준치를 넘어 경기회복이 본격 도래했음을 반영했다.

업체별로 보면 백화점의 RBSI 전망치가 3·4분기 93에서 4·4분기 146으로 대폭상승했고 대형마트는 129에서 117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는 강세를 보였다.

반면 슈퍼마켓은 121에서 86, 편의점은 119에서 77로 지수가 크게 하락해 겨울로 접어들면서 경기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연합뉴스

공기업 임원 자격 학력 제한 없앤다

각계에서 학력위조 파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들은 임원자격을 설정할 때 학력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이 마련돼 주목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 최근 열린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들이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할 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그 포괄적인 자격내용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결정 및 협상능력 등 기본역량과 기관의 특성, 여건을 반영해 세부별로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이라고 지침은 밝혔다.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력,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두되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적임자가 선발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요건에 불합리한 제한을 뒤서는 안된다고 지침은 명시했다.

이 공문은 ▲학력·경력·자격요건을 원칙적으로 두지 말고 ▲경력요건을 설정한다면 기획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화하며 ▲인간경역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폐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국내 기름값 2~3주 더 오를 것"

정부차원 비상조치 검토 안해

두바이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의 상승세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도 향후 2~3주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기름값 상승세는 그러나 아직 정부의 예상범위 내에 있어 유가급등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국내 유가는 국제시장의 원유가보다 국제시장 휘발유값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8월 넷째주에 단기 저점을 지난 국제시장 휘발유값이 9월 둘째주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

번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국제시장 휘발유값이 국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3주 정도 기간이 지난 후"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2~3주간 국내 휘발유값은 강세를 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 마지막주 국제 휘발유값은 배럴당 77.90달러였으나 9월 첫째주에는 배럴당 79.18달러로 뛰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국제유가가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를 62달러 선으로 전망했던 당초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 강제할당량 조정이나 관련 세금조정 등의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 과장 광고 엄중 제재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밝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상품의 과장 광고를 억제하고 판매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세종로에서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32개 보험사 사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의 광고 사후 심의를 사전 심의로 전환하고 광고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전 심의가 어려운 홀소영 광고의 경우 사후에 무작위로 적출해 심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 상품의 불완전(부



실) 판매와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특히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검사와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등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적극적 주의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이 가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남용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생명보험업계가 지난 2월 1조5천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며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보험 산업의 신뢰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남도와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 공동 주최로 13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성인력취업박람회에 4천여 명의 전남지역 여성 구직자들이 몰려 관심을 보였다. (전남도 제공)

목포서 여성 취업박람회

1대1 맞춤 컨설팅...4,000여명 몰려 '성황'

여성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13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취업! 내 인생의 반올림,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성 취업박람회는 전남도와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이 공동 주최하고 목포시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450여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전남도내 시·군에서 4천여 명의 여성 구직자들이 찾았다. 전남도는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약 2천5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박람회는 5개 테마부스로 구성

되는데 '채용관'에서는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면접 및 채용의 장이 마련되고 '컨설팅관'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및 직업성숙도 검사 등 개인별 1대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직업능력 개발관'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과 모집을 실시하며 '홍보관'에서는 여성 유망직업 및 신 직업 소개와 함께 각종 시험정보를 제공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서브프라임에 국제유가 연일 고공행진 지뢰밭 증시...경제 성장세 '발목'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겹치며 주식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3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73.34달러까지 치솟으며 12일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인도네시아 석유 수출량도 13일 100만 배럴을 넘어서기도 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의 고용시장과 소비시장의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음에 따라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전일대

비 1.68달러(2.2%) 상승한 배럴당 79.91달러로 이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결정된 증산규모에 대한 실망감과 미국 원유 채굴의 큰 폭 감소 발표가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수급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제유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승우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상 가장으로 국제유가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어 시장의 악재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FRB가 주식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18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인하가 결정되더라도 인하폭이 완만할 것이며 연내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또 국제유가의 상승이 정유주 등 에너지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원로비 부담이 커지는 항공주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이웃사랑' 사회복지기관에 차량 기증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복지기관에 차량을 잇따라 기증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3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인 '효사랑 주월의 집'에 1천800만 원 상당의 뉴카렌스 1대를 기증했다.

이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수발과 자원봉사자들이 혼자 사는 노인을 방문할 때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달 29일에도 광산구 관산장학회에 같은 차량 1대를 기증한 광주공장은 14일에도 서구 노인복지회관에 뉴카렌스 1대를 기증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